



지나친 소외

은행 Weekly | 2026.6.1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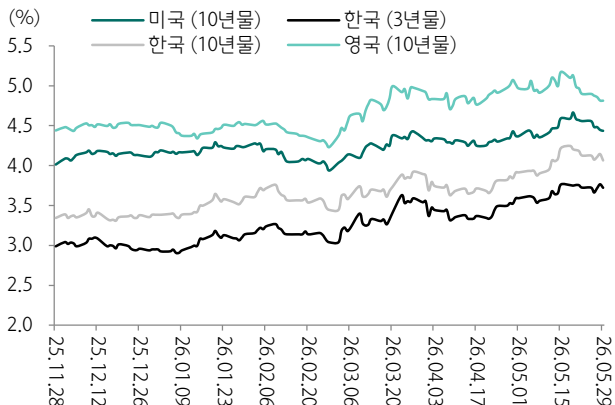
- 가계대출 제한, 생산적 금융, 국민성장펀드 초저리대출 등 금융권 대출이 기업대출로 쏠리게 되면서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하지만 바젤 3 규제 때문에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위험가중치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 정부가 생산적금융이 단순 실적쌍기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권에 자체 검증 체계 마련을 주문. 산업 연구역량 강화, 인력 확충, KPI 반영 등을 통해 생산적금융을 내부 문화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 이에 추진 실적을 담은 금융회사별 팩트북 공개를 제안
- 금융당국이 청년미래적금 판매 실적에 따라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기본금리 연 5%에 추가 우대금리 2~3%p를 각 기관이 정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 촉진 취지. 3년 적금 기본금리가 연 2%대인 상황에서 사실상 역마진 감소
-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면서도 의결문에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등 인상 신호탄을 쏘는 평가. 소수의견도 2명 출현.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판단하겠다는 취지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5월 29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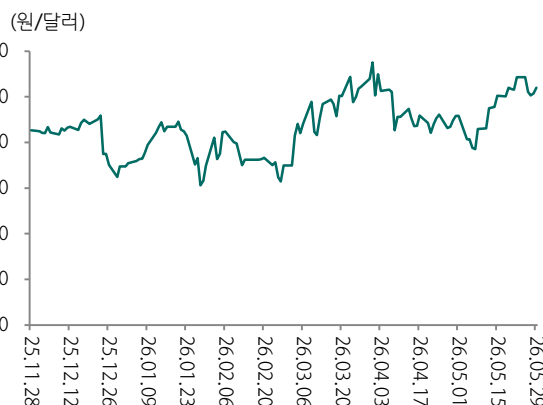
| | PBR (2026F) | PER (2026F) | ROE (2026F) | ROA (2026F) | Mkt. Cap. (bil.) | Performance (%) | | | | Weekly Net Buy (십억원) | | | |
|--------|----------------|----------------|----------------|----------------|---------------------|-----------------|-------|-------|-------|----------------------|--------|----------|---------|
| | | | | | | 1W | 1M | 3M | YTD | 국내기관 | (연기금) | 외국인 | 개인 |
| KOSPI | 2.04 | 9.3 | 22.0 | | 6,933,143.3 | 8.0 | 27.6 | 35.7 | 101.1 | 2,802.2 | -455.4 | -4,153.6 | 1,401.6 |
| 은행 | 0.64 | 7.5 | 8.8 | 0.63 | 193,260.4 | -5.3 | -7.8 | -9.1 | 15.3 | -105.1 | -44.4 | 53.7 | 43.6 |
| KB 금융 | 0.84 | 8.8 | 9.9 | 0.76 | 56,151.3 | -5.9 | -5.2 | -5.3 | 20.8 | -32.0 | -3.1 | 18.6 | 15.2 |
| 신한지주 | 0.71 | 8.9 | 9.1 | 0.65 | 44,427.7 | -4.7 | -6.3 | -3.4 | 21.7 | -36.2 | -6.1 | 30.0 | 9.3 |
| 우리금융 | 0.53 | 6.8 | 8.2 | 0.52 | 21,802.1 | -5.9 | -11.3 | -17.5 | 6.1 | 4.3 | -2.6 | -9.6 | 4.6 |
| 하나금융 | 0.64 | 7.3 | 9.2 | 0.63 | 31,579.7 | -5.7 | -9.4 | -5.5 | 22.3 | -25.6 | -6.7 | 21.5 | 4.7 |
| 기업은행 | 0.43 | 5.7 | 7.6 | 0.55 | 16,108.0 | -3.8 | -10.2 | -21.6 | -3.6 | -20.4 | -15.4 | 7.3 | 11.1 |
| BNK 금융 | 0.45 | 6.0 | 7.7 | 0.53 | 5,219.7 | -3.7 | -10.8 | -15.6 | 6.0 | 11.2 | -6.2 | -19.2 | -0.4 |
| iM 금융 | 0.42 | 5.7 | 7.6 | 0.48 | 2,785.2 | -8.4 | -10.1 | -5.7 | 11.5 | -6.5 | -1.7 | 5.1 | 0.3 |
| JB 금융 | 0.68 | 6.0 | 11.9 | 1.00 | 4,499.3 | -5.0 | -12.5 | -24.7 | -6.8 | 0.1 | -2.6 | -0.1 | -1.2 |
| 카카오뱅크 | 1.50 | 18.6 | 8.3 | 0.72 | 10,687.5 | -1.8 | -10.2 | -17.5 | 3.7 | -12.6 | -1.8 | 8.9 | 3.1 |
| 삼성카드 | 0.58 | 8.3 | 7.2 | 1.97 | 5,346.9 | -4.3 | -13.9 | -26.7 | -17.4 | -10.1 | -1.8 | 3.3 | 6.6 |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5.3% 하락해 KOSPI 상승률 8.0%를 대폭 초과하락. 젠슨항 방한 소식으로 시플랫폼과 로봇사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와 더불어 젠슨항 방한 관련주들이 급등한 반면 그 외 업종들은 대부분 주가가 약세를 보였으며 은행주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소외 현상 가속화. 이란 휴전안이 트럼프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가 하락했으며 글로벌 금리 또한 하락했기 때문. 여기에 포용금융이 계속적으로 뉴스플로우화되면서センチ멘트가 약화되고 있는 점도 은행주 약세의 배경.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이란과의 휴전안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세 전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4%로 한주간 12bp 하락해 다시 4.5%를 하회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4.00%로 12bp 하락. 국내 국채금리는 매파적 금통위로 인해 단기물은 상승했지만 글로벌 금리 하락 현상 동조화로 인해 장기물은 하락. 1년물 국채금리는 3.17%로 1bp 상승한 반면 3년물은 3.73%로 한주간 1bp 하락했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4.07%로 한주간 6bp 하락했음. 한편 원/달러 환율은 1,500원선에 갇힌 모습. 외국인이 KOSPI를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 관련 불확실성도 일부 작용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1,504.8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12.8원 하락에 그쳤음.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KOSPI를 4.1조원 가량 순매도했지만 매도 규모는 이전보다는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이었으며 은행주는 540억원을 순매수. 반면 국내 기관은 KOSPI를 2.8조원 순매수했지만 은행주는 1,050억원을 순매도. 지난주에는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700억원대로 다소 크게 줄어든 점도 수급이 약화된 이유
- 전주 특징주는 iM금융. 한주간 주가가 8.4% 하락해 하락 폭이 가장 컸는데 캐피탈로 추정되는 외국인 매수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3개월간 업종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초과상승 폭이 컸던데다 자사주 매입도 5월 22일로 마무리되면서 은행주 약세 국면 속에서 하락 폭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남. 반면 그 외 대부분의 은행주들은 5%대 내외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주가가 약세를 보여 왔던 기업은행과 BNK금융은 하락 폭이 3%대에 그쳐 소폭 적었음
- 5월 한은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올 것이라는 우리 예상에 정확히 부합. 한은 총재는 물가성장환율부동산 어디를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발언했으며, 6개월 후 금리 전망 3.25%에도 점이 2개 찍히는 등 점도표도 크게 상향. 소수의견 2명 출현과 더불어 금리 인상 당위성에 대해서도 금통위원들간 이견이 없는 상태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7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제성장 기대와 확장재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시 글로벌 금리에 연동되어 일시적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우상향 방향성 예상. 금리 상승기에 은행주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금리는 분명 은행주 주가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올해 들어 KOSPI 지수가 101%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주는 15% 상승에 그쳐 5개월동안에만 86%p underperform 중. 계속되는 포용금융 관련 뉴스플로우화에 따른センチ멘트 약화 요인 외에 특별한 이슈는 없으며, 펀더멘털은 계속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OSPI내 쏠림현상 장기화에 따른 수익률 제고를 위해 보험사자산운용 등 국내 기관마저 은행주 순매도에 가담하면서 초과하락 폭 오히려 확대 중. 주가 반전을 위한 모멘텀 발생이 절실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PBR이 수익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가격 요인 외에 이렇다할 뚜렷한 모멘텀 요인도 부재(1분기 부진했던 은행들의 2분기 실적 개선 및 2분기 CET 1 비율 회복 등 확인 필요). 호재가 만발한 반도체 등 주도업종들로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는 하지만 은행주도 펀더멘털이 괜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지나친 소외 현상으로 판단. 결국 현 시점에서 은행주는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이 돌아와야 의미있는 반등이 가능한데 전제조건은 원/달러 환율 안정화, 건전성 관련 우려 해소 등일 것으로 판단.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나친 소외 현상은 결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주 지방선거 이후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 등 그동안 밀려 있었던 정책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음. 미국과 이란의 합의 여부 등도 주요 관전포인트. 만약 향후 시장 분위기가 변화 요인이 발생한다면 소외 업종들 중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먼저 확대될 수도 있다고 판단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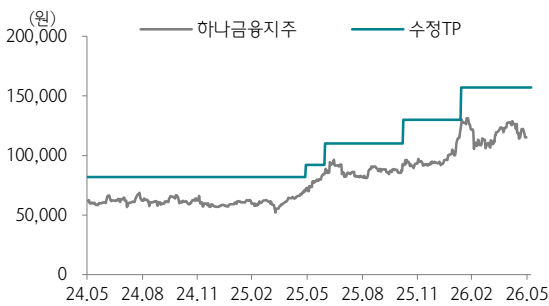
하나금융(매수/TP 157,000원), 우리금융(매수/TP 43,000원)

- 하나금융은 환율 하락 전환시 모멘텀 발생 기대되고, 두나무 지분 투자 또한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 NIM 상승세와 대손비용 감소로 이익가시성 높아졌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시장의 우호적 평가 예상
-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던 은행들의 주가 약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금융도 그 중 하나. 다만 실적 부진은 주로 비경상 요인 때문으로 2분기 실적 회복 기대. 현 PBR 0.53배로 경쟁은행지주사들과의 괴리를 다소 크게 벌여줬다고 판단

| Global Peer Table | | | | | | (2026년 5월 29일 종가 기준) | | | |
|---------------------------|----------------|----------------|----------------|----------------|---------------------|----------------------|-------|-------|-------|
| | PBR (2026F) | PER (2026F) | ROE (2026F) | ROA (2026F) | Mkt. Cap. (bil.) | Performance (%) | | | |
| | | | | | | 1W | 1M | 3M | YTD |
| KOSPI | 2.04 | 9.3 | 22.0 | | 6,933,143.3 | 8.0 | 27.6 | 35.7 | 101.1 |
| 은행 | 0.64 | 7.5 | 8.8 | 0.63 | 193,260.4 | -5.3 | -7.8 | -9.1 | 15.3 |
| KB금융 | 0.84 | 8.8 | 9.9 | 0.76 | 56,151.3 | -5.9 | -5.2 | -5.3 | 20.8 |
| 신한지주 | 0.71 | 8.9 | 9.1 | 0.65 | 44,427.7 | -4.7 | -6.3 | -3.4 | 21.7 |
| 우리금융 | 0.53 | 6.8 | 8.2 | 0.52 | 21,802.1 | -5.9 | -11.3 | -17.5 | 6.1 |
| 하나금융 | 0.64 | 7.3 | 9.2 | 0.63 | 31,579.7 | -5.7 | -9.4 | -5.5 | 22.3 |
| 기업은행 | 0.43 | 5.7 | 7.6 | 0.55 | 16,108.0 | -3.8 | -10.2 | -21.6 | -3.6 |
| BNK금융 | 0.45 | 6.0 | 7.7 | 0.53 | 5,219.7 | -3.7 | -10.8 | -15.6 | 6.0 |
| iM금융 | 0.42 | 5.7 | 7.6 | 0.48 | 2,785.2 | -8.4 | -10.1 | -5.7 | 11.5 |
| JB금융 | 0.68 | 6.0 | 11.9 | 1.00 | 4,499.3 | -5.0 | -12.5 | -24.7 | -6.8 |
| 카카오뱅크 | 1.50 | 18.6 | 8.3 | 0.72 | 10,687.5 | -1.8 | -10.2 | -17.5 | 3.7 |
| 삼성카드 | 0.58 | 8.3 | 7.2 | 1.97 | 5,346.9 | -4.3 | -13.9 | -26.7 | -17.4 |
| 미국 | | | | | | | | | |
| S&P 500 | 5.14 | 22.4 | 21.6 | 5.62 | 67,524.4 | 1.4 | 5.3 | 10.5 | 10.7 |
| 은행 | 1.52 | 12.1 | 12.5 | 1.08 | 2,037.6 | -0.7 | -3.7 | 2.0 | -5.0 |
| Wells Fargo | 1.39 | 11.9 | 12.8 | 0.99 | 237.3 | 1.5 | -5.1 | -4.2 | -16.8 |
| JPM | 2.22 | 13.4 | 17.1 | 1.27 | 802.0 | -2.3 | -4.4 | 0.2 | -7.1 |
| CITI | 1.07 | 11.6 | 9.7 | 0.71 | 214.7 | 0.6 | -1.2 | 14.8 | 7.9 |
| BOA | 1.28 | 11.6 | 11.7 | 0.96 | 366.2 | -0.4 | -3.5 | 4.1 | -6.2 |
| US Bancorp | 1.37 | 10.7 | 13.1 | 1.17 | 85.1 | 0.0 | -3.2 | 1.4 | 2.8 |
| PNC | 1.46 | 11.8 | 12.7 | 1.26 | 88.8 | 0.9 | -0.8 | 4.9 | 5.9 |
| BB&T | 0.97 | 10.6 | 9.4 | 1.04 | 60.1 | -0.4 | -5.4 | -1.2 | -2.0 |
| 중국 | | | | | | | | | |
| 상해A주지수 | 1.42 | 14.4 | 10.0 | 1.42 | 64,743.4 | -1.0 | -0.8 | -2.0 | 2.5 |
| 은행 | 0.65 | 7.1 | 9.4 | 0.69 | 11,709.3 | -0.3 | -2.1 | 5.5 | -7.8 |
| 공상은행 | 0.62 | 7.0 | 9.1 | 0.68 | 2,444.2 | 0.6 | -0.8 | 6.8 | -9.0 |
| 건설은행 | 0.69 | 7.5 | 9.6 | 0.72 | 1,973.2 | -1.4 | 0.1 | 15.9 | 7.3 |
| 농업은행 | 0.74 | 7.7 | 9.8 | 0.59 | 2,170.7 | -2.2 | -6.9 | 0.7 | -17.7 |
| 중국은행 | 0.65 | 7.8 | 8.4 | 0.66 | 1,774.3 | 0.0 | 1.9 | 11.0 | 2.3 |
| 교통은행 | 0.49 | 6.3 | 7.8 | 0.62 | 576.0 | 0.3 | -2.1 | 1.7 | -8.1 |
| 초상은행 | 0.80 | 6.4 | 12.9 | 1.13 | 970.8 | 2.7 | -0.7 | -1.9 | -9.7 |
| 일본 | | | | | | | | | |
| NIKKEI | 2.92 | 23.9 | 12.0 | 4.21 | 1,032,501.0 | 4.7 | 11.9 | 13.5 | 31.8 |
| 은행 | 1.40 | 13.9 | 9.9 | 0.46 | 123,717.9 | -3.1 | 6.0 | 1.5 | 22.6 |
| Mitsubishi UHF | 1.59 | 15.1 | 10.8 | 0.61 | 35,591.3 | -3.0 | 6.5 | 3.0 | 20.3 |
| Sumitomo Mitsui Financial | 1.42 | 14.0 | 10.8 | 0.61 | 22,272.2 | -3.1 | 5.6 | -1.5 | 15.4 |
| Mizuho | 1.60 | 14.8 | 11.4 | 0.43 | 17,576.2 | -3.5 | 7.0 | 1.8 | 26.2 |
| Sumitomo Mitsui Trust | 1.14 | 12.7 | 9.3 | 0.37 | 3,825.3 | -2.5 | 5.7 | 2.0 | 14.6 |
| 유럽 | | | | | | | | | |
| MSCI Europe | 2.31 | 15.6 | 14.3 | 1.79 | 15,108.5 | 0.2 | 3.3 | 0.6 | 5.7 |
| 은행 | 1.39 | 10.5 | 13.4 | 0.74 | 1,961.3 | 2.1 | 5.4 | 5.2 | 6.5 |
| HSBC | 1.73 | 11.4 | 15.4 | 0.84 | 239.5 | 1.4 | 3.9 | 3.4 | 18.7 |
| Santander | 1.49 | 10.6 | 13.7 | 0.77 | 157.6 | 2.9 | 3.4 | 0.6 | 6.5 |
| BNP Paribas | 0.85 | 8.0 | 10.8 | 0.45 | 102.4 | 3.4 | 7.2 | 0.2 | 15.1 |
| Credit Agricole | 0.68 | 7.3 | 9.6 | 0.28 | 50.2 | 2.8 | 6.9 | -5.5 | -5.4 |
| Deutsche | 0.78 | 8.4 | 9.7 | 0.47 | 53.0 | 3.1 | 8.6 | -4.0 | -16.1 |
| Unicredit | 1.65 | 10.1 | 17.0 | 1.26 | 112.0 | 3.0 | 13.1 | 5.1 | 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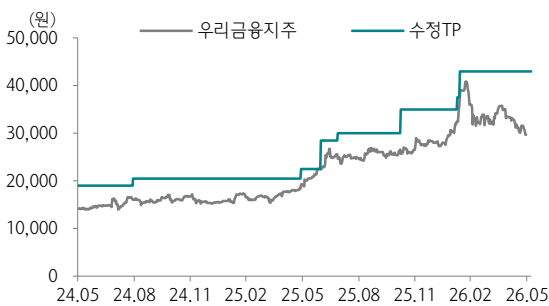
투자이전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하나금융



| 날짜 | 투자이전 | 목표주가 | 괴리율 | |
|---------|------|---------|---------|---------|
| | | | 평균 | 최고/최저 |
| 26.2.11 | BUY | 157,000 | | |
| 25.11.7 | BUY | 130,000 | -25.41% | -6.00% |
| 25.6.30 | BUY | 110,000 | -20.85% | -12.27% |
| 25.5.29 | BUY | 92,000 | -14.77% | -8.48% |
| 24.3.21 | BUY | 82,000 | -25.94% | -16.10% |

우리금융



| 날짜 | 투자이전 | 목표주가 | 괴리율 | |
|---------|------|--------|---------|---------|
| | | | 평균 | 최고/최저 |
| 26.2.11 | BUY | 43,000 | | |
| 26.2.7 | BUY | 37,500 | -6.47% | -5.07% |
| 25.11.7 | BUY | 35,000 | -19.83% | -7.29% |
| 25.7.28 | BUY | 30,000 | -15.26% | -10.50% |
| 25.6.30 | BUY | 28,500 | -13.16% | -6.14% |
| 25.5.29 | BUY | 22,500 | -7.11% | 0.22% |
| 24.8.29 | BUY | 20,500 | -20.23% | -10.54% |
| 24.3.21 | BUY | 19,000 | -23.12% | -12.63%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이전 비율공시

- **투자이전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 투자등급 | BUY(매수) | Neutral(중립) | Reduce(매도) | 합계 |
|------------|---------|-------------|------------|------|
|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 97.25% | 2.75% | 0.00% | 100% |

* 기준일: 2026년 5월 29일